

경기 선소리산타령 창법에 관한 고찰*

— 앞산타령을 중심으로 —

이형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 입창(立唱)이며 남성소리인 경기선소리 산타령 중 앞산타령을 중심으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창법을 중심으로 종류와 음악적 특성을 분석하여 경기선소리 산타령의 음악적 특징을 밝혀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유는 그동안 전통 민속 성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호남지역의 소리인 판소리나 경기, 서도민요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서울, 경기도 지역의 집단적 연회 형태의 노래이며 남성 중심의 소리인 경기선소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선소리 산타령의 창법의 종류와 사용부호의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경기선소리 산타령의 음악적 특징을 밝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기선소리 산타령 사용창법의 종류로는 속청, 평 목, 떠는 목, 조름 목, 덜미 목, 치는 목, 눌러주는 목 등 7가지의 창법을 사용한다. 속청은 가늘게 내는 높으면서 분명한 소리로 선율의 급격한 도약 진행시 사용한다. 평목은 음을 떨지 않고 내는 소리로 끝부분을 잘게 농음한다. 떠는 목은 음을 흔들어 내는 소리로 잘게 농음하는 경우와 굵은 농음을 사용한다. 조름 목은 조으는 목 혹은 들면서 조으는 목이라고도 하며 선율이 상행 진행 할 때 상행의 음을 바짝 조이면서 사용하는 소리를 말한다. 덜미 목은 속청을 사용하여 단3도 혹은 완전 4도 위 음으로 짧고 약하게 올렸다 제자리로 오는 소리로 경기선소리의 특징적 창법이라 하겠다. 치는 목의 형태는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정한 음에서 장2도 위 음으로 짧게 굴리듯이 치는 목, 하나는 잘게 농음 한 후 액센트를 주듯이 치는 목, 마지막은 일정한 음에서 약하게 장2도나 단3도 위 음을 친 후 본음으로 오는 목으로 이는 메나리 토리의 선율진행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 눌러주는 목은 평목의 일종으로 긴 지속음 뒤에 굵게 농음하면서 음을 눌러 흘려주는 목을 말하며 앞산타령에서는 조름 목과 덜미 목 선율 사용 후 음을 흘려내리는 선율에서 자주 사용한다.

둘째, 경기 선소리 산타령에서 사용부호는 7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은 잘게 농음하는 부호, “C”는 일정한 음을 부드럽게 굴리거나 치는 부호, “S” 아주 짧게 음을 낸 후 막는 부호, “9”은 덜미목으로 소리하는 부호, “V”은 음의 끝부분을 잘게 농음하는 부호, “\”는 음을 흔들며 퇴성하듯이 끌어내리는 부호, “/”는 일정한 음을 장3도 정도 추성하듯이 들어올리는 부호 등을 사용한다.

주제어: 경기선소리, 산타령, 앞산타령, 창법, 덜미 목, 속청, 조름 목

* 이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국악관현악과 교수

I. 서언

경기 선소리는 “넓은 의미로는 서울·경기도 지역에서 서서 부르는 민요를 함께 칭하는 말이고, 좁은 의미로는 경기 산타령을 지칭하며, 또한 앉아서 부르는 좌창(坐唱)과 대비되는 말로 입창(立唱)이라고도 한다.¹⁾” 경기소리의 분류에 있어서 경기선소리 산타령은 경기12잡가, 휘모리잡가, 잡잡가 등과 함께 경기잡가에 포함되며, 연주 순서는 ‘판소고’라고 하여 소리꾼 모두가 신나게 소고를 치고 나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연주순서는 ‘놀랑’, ‘앞산타령’, ‘뒷산타령’, ‘도라지타령’이라고도 하는 ‘자진산타령’ 순으로 연주하는 형식을 갖는다. 경기선소리 산타령은 모갑(某甲)이가 장구를 비스듬히 세워 메고 가운데서 소리를 맥이면 소고를 든 소리꾼들이 모갑이를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서서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렀다 하면서 발림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소리를 받는 형태로 연회를 한다.

현재 경기 선소리 산타령은 1968년 4월 18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왕십리패의 이창배(1916~1983), 뚝섬패의 김태봉(1898~1970), 과천패의 정득만(1907~1992), 동막패의 김순태(1914~1978), 경기12좌창의 명인인 유개동(1898~1975) 등 5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활발한 전승 및 연주활동을 하였으나 모두 작고한 상태이며²⁾, 현재는 이창배와 정득만의 제자인 황용주(1937~현재)가 1992년 7월1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경기 선소리패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도 인정되어 경복궁 중건 때 초청되었던 예인집단으로 대중화된 음악 장르였다. 또한 조선조 말엽에는 서울 주변의 오강(五江)지역인 마포(麻浦), 용산(龍山), 서강(西江), 한남동(漢

1) 세광음악출판사(1996),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46쪽; 최태현(2007), 『전통성악교재』, 중앙대학교출판부, 95쪽.

2) 황용주(1992), 『한국경서도창악대계』, 선소리산타령보존회, 171~172쪽.

南洞), 서빙고(西氷庫)를 중심으로 많은 소리패들이 존재하여 성행되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고증된 기왕의 사실이다.³⁾ 이와 같이 남자 소리꾼들이 중심이 되는 남창(男唱)소리인 경기선소리 산타령의 역사적·음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소리인 판소리나 경기민요 분야에 비해 학문적 연구는 물론 제도권 교육 현장의 전승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연주 활동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도 음악학적 관점에서 본 경기선소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경기선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구분 짓는 창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 선소리 산타령 연주자들의 구술⁴⁾과 분석 자료로 활용한 황용주 편 『한국 경·서도창악대계』, 그리고 『소암 황용주 선소리 산타령』CD 및 Tape를 바탕으로 경기선소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법에 주목하고 경기선소리 창법의 종류 및 특징을 분석하여 역사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기선소리 산타령의 음악적 특수성을 밝혀보는 것이 목적이다.

II. 경기선소리 산타령 창법

창법(唱法, singing style)은 “발성·표현·기교 등에 관한 성악용어”이다.⁵⁾

3) 황용주(1992), 같은 책, 157쪽.

4) 2007년 12월 6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경기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연구소에서 현 예능보유자인 황용주 선생의 구술과 경기선소리 산타령 명창인 방영기 명인의 구술을 중심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선소리 산타령의 창법, 시김새, 표기부호에 대해 대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법에 관한 용어들은 경기선소리 산타령 창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창법용어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5) 세광음악출판사(1996),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337쪽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대해 참조 작성함. ‘발성(voice)’은 노래할 때 폐에서 나오는 숨이 성대를 통과할 때 성대를 진동시켜 성음(聲音)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표현(expression)’은

시김새는 “선율을 이루는 주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음으로 시김새의 의미는 악기마다 가지는 특수 주법화된 음형, 장식음, 선율을 이루는 잔가락”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⁶⁾ 이와 같이 창법은 시김새와 유사한 측면을 내포하지만 창법은 상위개념이고, 시김새는 하위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1. 창법의 종류

경기선소리 창법의 종류로는 속창, 평목, 떠는 목, 조름목, 덜미 목, 치는 목, 눌러주는 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속창’은 가성(假聲)이나 세창(細淸), 세성(細聲)이라고도 하며 가성이나 세창은 가곡·가사·시조 등에서 사용하는 창법으로 가늘게 내는 높은 소리를 말하며⁷⁾, 세성(細聲)은 판소리 창법의 용어로 아주 가늘게 내어 약하지만 분명한 소리를 말한다. 둘째, 평목은 판소리나 가곡 등에서 사용하는 창법으로 음을 떨지 않고 평으로 내는 목을 말하며 경기선소리에서는 일정한 음을 길게 지속음으로 한 후 끝부분에서 잘게 흔들어 낸다.

셋째, 떠는 목은 음을 흔들어 내는 음을 말하며 판소리, 가곡, 민요 등에서 요성(搖聲)을 말한다. 넷째, 조름 목은 조르는 목 혹은 들면서 조르는 목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음에서 상행진행 할 때 상행의 음을 속으로 바싹 줄라 매듯이 하는 목을 말한다. 판소리에서 “목소리를 맺어 떼려고 바싹 조아 들이는 목소리”와 유사한 형태의 목사용을 말한다.⁸⁾ 다섯째, 덜미 목은 속창을

직접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뚜렷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 ‘재현’ 혹은 ‘묘사’라고 하며 기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기교(technic)’는 음악을 창조하는 수단의 체계로 연주기교는 악기나 목소리의 발음발성법, 운지운궁법, 표정법으로 자연법칙적인 음(音)을 자유로이 지배하면서 독자적인 표현을 달성하는 수단을 말한다.

6) 세광음악출판사(1996), 같은 책, 957쪽.

7) 장사훈(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428쪽.

사용하여 단3도 혹은 완전4도 위음으로 짧고 약하게 올렸다 제자리로 오는 소리이며, 판소리에서처럼 크고 높은 소리를 통성으로 질러 내는 소리와 구별된다.⁹⁾

여섯째, 치는 목은 일정한 음에서 약하게 단3도 위 음을 치듯이 하여 제 음으로 오는 소리를 말하며 경상도 메나리토리의 치는 음과 유사하다. 일곱째, 눌러주는 목은 평목의 일종으로 대부분 긴 지속음 뒤에 조금은 굽게 놓음하면서 음을 눌러주는 목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경기 선소리에서 사용되는 창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경기 선소리 창법의 종류 및 내용

창법종류	창 법 내 용
속 청	가늘게 내는 높은 소리이며 분명한 소리
평 목	음을 떨지 않고 평으로 내는 목, 경기선소리에서는 끝부분에서 잘게 흔들어난다.
떠는 목	음을 흔들어 내는 음으로 요성(搖聲)이라 한다.
조름 목	일정한 음에서 상행진행 할 때 상행의 음을 속으로 바싹 줄라 매듯이 하는 목, 조르는 목, 들어서 조르는 목
덜미 목	속청을 사용하여 단3도 혹은 완전4도 위음으로 짧고 약하게 올렸다 제자리로 오는 목
치는 목	일정한 음에서 약하게 단3도 위음을 치듯이 하여 제 음으로 오는 목
눌러 주는 목	긴 지속음 뒤에 조금은 굽게 놓음하면서 음을 눌러주는 목

2. 사용 부호

경기선소리 창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음악부호는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은 놓음하는 표시로 잘게 놓음하는 것을 말한다. **c**는 일정한 음을 부드럽게 굴리거나 치는 부호이며, **s**는 아주 짧게 음을 낸 후 막는 부호로서 서양음악의 스타카토(staccato)와 유사하다.  은 덜미 목으로 소리하는 부호

8) 박헌봉(2008), 『창악대강』, 서울국악예술중고등학교, 70쪽.

9) 장사훈(1984), 위의 책, 238쪽.

이며,  은 음의 끝부분을 잘게 농음하는 부호이다.  은 음을 흔들며 끌어내리는 부호로 퇴성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는 일정한 음을 장2도 상행하는 음정으로 추성하듯이 들어올리는 부호이다. 이상과 같이 경기 선소리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경기선소리 사용부호

사 용 부 호	내 용
	잘게 농음하는 부호
	일정한 음을 부드럽게 굴리거나 치는 부호
	아주 짧게 음을 낸 후 막는 부호
	덜미 목으로 소리하는 부호
	음의 끝부분을 잘게 농음하는 부호
	음을 흔들며 퇴성하듯이 끌어내리는 부호
	일정한 음을 장2도 정도 추성하듯이 들어올리는 부호

III. 창법 분석

1. 속청

속청은 가성(假聲)이나 세청(細淸), 세성(細聲)이라고도 하며 가곡·가사·시조 등에서 사용하는 창법으로 기늘게 내는 높은 소리를 말하며, 약하지만 분명한 소리를 말한다. 경기 선소리에서는 <예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덜미 목 선율의 F음-A^b음-F음으로 진행할 때와 1절 ‘어 다’사설의 C음에서 단6도 상행의 A^b음으로 상행 도약 진행할 때 속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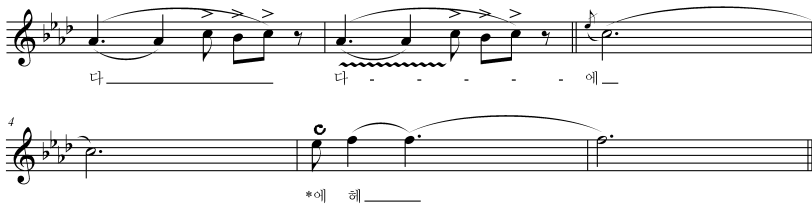
<예보 1> 경기 선소리의 속칭



2. 평 목

평목은 판소리나 가곡 등에서 사용하는 창법으로 음을 떨지 않고 평으로 내는 목을 말하며 경기선소리에서는 일정한 음을 길게 지속음으로 한 후 끝부분에서 잘게 흔들어 낸다. <예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청음이라 할 수 있는 A^b음을 지속적으로 끌면서 음을 떨지 않고 평성으로 내거나 끝을 잘게 놓음 한 후 단3도 상행의 C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청A^b음의 단3도 위 음인 C음, 사설 ‘에 헤’의 F음을 지속음으로 길게 소리내고 있어 판소리와는 달리 본청음 뿐 만 아니라 사설을 길게 지속음으로 사용할 경우 본청음을 떨지 않고 평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보 2> 경기 선소리 평 목



3. 떠는 목

떠는 목은 음을 흔들어 내는 음을 말하며 판소리, 가곡, 민요 등에서 요성(搖聲)을 말한다. 경기 선소리에서는 <예보 3>과 같이 떠는 목은 지속음 뒤에

잘게 떠는 목과 선율의 처음부터 잘게 혹은 굵게 떠는 목으로 사용한다. <예보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 음과 B^b 음을 끝부분에서 얹고 잔잔하게 농음하거나 사설 ‘얹은 노승’의 ‘승’ 부분과 ‘태백산은’의 ‘은’ 부분에서 서도소리의 굵은 농음과 같이 약간의 굵게 농음한 후 장2도 위 음인 C음으로 선율 진행 한다. 경기 선소리에서 굵게 떠는 목은 서도소리의 굵은 농음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보 3> 경기 선소리 떠는 목



4. 조름 목

조름 목은 ‘조으는 목’ 혹은 ‘들면서 조으는 목’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음에서 상행진행할 때 상행의 음을 속으로 바싹 줄라 매듯이 사용하는 목을 말하며 경기선소리의 특징적인 창법 중이 하나이다. <예보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음에서 단3도 위 음인 E^b 음, D^b 음에서 단3도 위 음인 F음, C음에서 완전 4도 위 음인 F음, C음에서 단3도 위 음인 E^b 음, 달미목과 병행 사용하는 선율구에서는 F음에서 단3도 위 음인 A^b 음으로 선율이 단3도 혹은 완전 4도 위로 진행 할 때 목을 조으면서 사용하거나 조은 후 떠는 목을 사용하여 음을 얹게 혹은 굵은 농음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보 4> 경기 선소리 조름 목

에 히__에 히__ 니 하 동__ 동 정 호__ 로__만 봉 황__이__

5 염__ 불 암__은__ 죽__ 실 - 을__ 남 삼__막 은__

8 학__ 림__암 을__ 님__ 게__ 유__ 산__

5. 덜미 목

덜미 목은 속청을 사용하여 단3도 혹은 완전 4도 위 음으로 짧고 약하게 올렸다 제자리로 오는 소리이며, 판소리에서처럼 크고 높은 소리를 통성으로 질러 내는 소리와는 구별되는 소리로 경기 선소리나 경기민요의 특징적인 창법중의 하나이다. <예보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덜미목은 경기선소리 앞산타령의 경우 조름목과 병행하는 선율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E^b 음이나 F음에서 단3도 혹은 완전 4도 위 음인 A^b 음으로 속청을 사용하여 짧게 음을 친 후 F음으로 중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보 5> 경기 선소리 덜미 목

에 - 천 관 악 산 염 죽 - 실 - 을 - 남 - 삼 - 막 은 -

4 학 - 림 - 암 을 - 곱 - 님 - 게 - 유 - 산 -

치는 목은 일정한 음에서 약하게 단3도 위음을 치듯이 하여 제 음으로 오는 소리를 말하며 경상도 민요인 메나리 토리에서 사용하는 치는 음과 유사하다. <예보 6-1>·<예보 6-2>·<예보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선 소리의 치는 목의 형태는 <예보 6-1>과 같이 일정한 음에서 장2도 위 음으로 짧게 굴리듯이 치는 형태와 <예보 6-2>와 같이 본청 A^b 음에서 잘게 농음한 후 단3도 위 음인 C음으로 액센트를 주듯이 치는 형태, 그리고 <예보 6-3>과 같이 C음에서 단3도 위 음인 E^b 음을 거쳐 원음인 C음으로 오는 형태와 본청 A^b 음에서 장2도 위 음인 B^b 음, A^b 음을 거쳐 F음으로 중지하는 형태의 치는 목이 있다. 후자의 치는 목은 선율진행(레-도-라)이나 치는 목의 형태가 경상도 민요의 메나리토리의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 나 아 -- -- 에 -- -- 나 아 -- -- 에

7 다 -- -- -- 에 --

10 잠 충 어 부 -- -- 후 에 팔 도 로 들 아 -- -- 라

13 관 -- -- -- -- -- 딱 나 -- -- -- -- -- 절 -- -- -- -- --

관 -- -- -- -- -- 가 -- -- -- -- -- 에 --

<예보 6-2> 경기 선소리 치는 목(2)

137

— — — — 제 일 봉 에 — 봉 황 — — 이 —

140

춤 을 추 고 — — — — 한 — 강 수 깊 은 — 물 에 — —

143

용 — 마 하 — — — — 도 — 날 다 — — — — 말 가 — — — — 에 —

다 — — — — 라 — — — — 다 — — — — 아 — — — —

8

<예보 6-3> 경기 선소리 치는 목(3)

돌 아 — — — — 든 — — — — 녀 나 — — — — 든 — — — — 천 축 — — — — 사 — — — — 라 돌 아 — — — — 든 — — — —

5

나 도 — — — — 보 — — — — 섬 진 — — — — 구 비 — — — — 돌 린 더 나 — — — —

7. 놀러주는 목

놀러주는 목은 평목의 일종으로 대부분 긴 지속음 뒤에 굽게 농음하면서 음을 놀려 퇴성하듯이 흘러주는 목을 말한다. <예보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놀러주는 목은 F음에서 장2도 아래인 E^b음, 완전4도 아래 음인 C음으로 목을 놀려 굽게 농음하면서 퇴성한다. 또한 E^b음에서 단3도 아래 음인 C음으로 목을 놀려 굽게 농음하면서 퇴성함을 알 수 있다. 경기 선소리 앞산타령의 경우 놀러주는 목은 일정한 음을 지속음으로 사용한 후 음을 흘러내리는 선율과 조름 목과 덜미 목 선율사용 후 음을 흘러내리는 선율에서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보 7> 경기 선소리 놀러주는 목

8
나 너 - - - - -

4
- - - - - 에 - - 히 - 물 - - 고 - - - -

7
오 - - 속 - - - - 오 - 로 상 - - 주

10
북 - - 승 - 가 - - 요 강 - - - - 일

13
망 - - - - 월 - 이 구 - - 경 - 하 - - 고 사 - - - - 로 - 만

16
에 - - 신 - - 테 - - - - - 빌 - - - - 려 - 라

19
객 - 이 - 요 - - - - - 산 - - - -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 앞산타령에서 출현하는 창법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사용부호에 대해 연구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선소리 산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법의 종류는 속청, 평 목, 떠는 목, 조름 목, 덜미 목, 치는 목, 눌러주는 목 등 7가지의 창법을 사용한다. 속청은 가늘게 내는 높으면서 분명한 소리로 경기 선소리에서는 덜미목의 고음이나 선율의 급격한 도약 진행시 사용한다. 평목은 음을 떨지 않고 내는 소리로 경기 선소리에서는 긴 지속음 뒤 음정의 끝부분에서 잘게 농음한다. 떠는 목은 음을 흔들어 내는 소리로 경기 선소리에서는 잘게 농음하는 경우와 서도소리의 굵은 농음과 유사한 농음을 사용한다. 조름 목은 조르는 목 혹은 들면서 조르는 목이라고도 하며 단3도나 완전 4도 위 음으로 선율이 상행 진행 할 때 상행의 음을 바짝 조이면서 사용하는 소리를 말한다.

덜미 목은 속청을 사용하여 단3도 혹은 완전 4도 위 음으로 짧고 약하게 올랐다 제자리로 오는 소리로 앞산타령의 경우 조름목과 병행하는 선율구에서 사용하며 경기선소리의 특징적 창법이라 하겠다. 치는 목의 형태는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정한 음에서 장 2도 위 음으로 짧게 굴리듯이 치는 목, 하나는 잘게 농음 한 후 액센트를 주듯이 치는 목, 마지막은 일정한 음에서 약하게 단3도 위 음을 친 후 본음으로 오는 목과 일정한 음에서 장2도 위 음으로 친 후 본음에서 단3도 하행하는 선율형태로 메나리 토리의 선율진행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 눌러주는 목은 평목의 일종으로 긴 지속음 뒤에 굵게 농음하면서 음을 눌러 퇴성하듯이 흘러주는 목을 말하며 앞산타령에서는 조름 목과 덜미 목 선율 사용 후 음을 흘러내리는 선율에서 자주 사용한다.

둘째, 경기 선소리 산타령에서 사용하는 음악부호는 7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은 잘게 농음하는 부호, “”는 일정한 음을 부드럽게 굴리거나 치는 부호, “”는 아주 짧게 음을 낸 후 막는 부호로 사용한다. “”은 덜미목으로 소리하는 부호, “”은 음의 끝부분을 잘게 농음하는 부호, “”는 음을 흔들며 퇴성하듯이 끌어내리는 부호, “”는 일정한 음을 장3도 정도 추성하듯이 들어올리는 부호 등을 사용한다.

경기 선소리 산타령은 경·서도를 대표할 만한 역사성과 음악적으로 다양한 창법과 시김새적 특징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민요나 판소리와는 달리 아직까지 학계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의 국악예술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도 타 분야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향후 역사적 중요성과 음악예술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기 선소리 산타령의 발전을 위해선 관련학계의 연구관심도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권 교육에 편입되기 위해선 경기 선소리 산타령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주 활동 뿐 만 아니라 음악적·교육적 체계 확보를 위한 학문적 연구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0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0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1월 12일
--

부록악보

앞산타령(山打令)

Apsan T'aryong

♩. = 48

6 나 너 - - - 너 나 - - 노 - - -
11 에 - - 에 히 - - 에 히 - - 에 해³ - - 야 - -
15 1 에 - - 히 어 - - 에 히 이 히
19 어 히 루 - - - 산 이 - - 로 - - 구 나 아 - - 에 - -
23 천 관 악 산 염 - 불 - 암 - 은 - - - 연 - 주 - 대 - 요 - 도 - 봉 -
27 - - 불 성 삼 막 - 으 - 로 둘 아³ - - 든 - - 다 - - -
32 *에 해 - - 에 어 디 이 - -
37 2 이 히 - - 어 히 - - 이 해³ - - 에 - - 야 - - 에 - -
42 히 어 - - 에 히 이 히 - - 어 루 산 이 - - 로 - - 구 나 아 - - 에 - -
46 단 산 봉 황 - 은 - - - - - 죽 - 실 - - 을 - - 물 - 고 - - -
벽 오 둥 - - - - - 속 - - - - 으 - 로 녀 나³ - - - - -

50 다 - - - - *경 상 도 - - - - 태 백 산 은 - - -

54 상 - - 주 낙 동 강 이 - 들 러 있 고 - - - 전 - - 라 도 -

58 지 리 - - - - 산 으 - - 하 동 이 라 - - - - 섬 진 흥

63 수 로 - - 만 다 들 러 있 다 - - 에 -

67 동 불 암 서 진 - 관 - - - - - 남 - 삼 - 막 은 - 북 - 승 - 가 - 요

71 도 - 봉 - - - - 망 - - - - 월 이 천 죽 - - - 사 - 라

75 - - - - - *해 의 소 상 강 - - - - 일

79 천 - 리 넓 은 물 에 - - - 구 비 출 령 - - 동 정 호 - 로 - 만

83 다 들 러 - 있 다 - - 에 - 성 절 덕 - -

87 절 - - - - 학 - 립 - 암 을 - - 구 - 경 - 하 - 고

90 화 - 게 - - - 사 - - - 로 - 만 들 아 - - - - -

94 다 - - - - - *탁 자 앞 에 - - - 앞 은 노 승 - -

98 팔 - - 대 장 - 삼 을 - 떨 치 입 고 - - - 고 부 - - - 랑

102 곱 - - - - - 뽕 엷 불 - - 만 한 다 - - - 에 -

106 5 S 저 달 아 보 느 - 나 - - - - - 님 - 게 - - - 신 - - - 데 - - -

110 명 기 를 - - - - - 별 - - - - - 러 라 나 도 - - - 보 - - -

114 자 - - - - - *너 - - 오 는 길 - 에 - - - - - 약 - - 수

119 삼 - 천 - - 리 와 만 - 리 장 성 이 - - - - - 돌 린 더 냐 - - - 잠 총 어 부 - - - 후 에

123 축 도 지 - - 난 이 - - - 가 리 - - - 댔 더 냐 - - - 에 -

127 6 S 팔 도 로 돌 아 - - - - - 라 - - - - - 유 - 산 - - - -

130 객 이 - 요 - - - - - 여 뵈 도 - - - - - 명 - - - - 산 - 이

134 경 기 삼 각 - 산 이 - - - - - 라 - - - - - *삼 각 산 -

참고문헌

<기본 자료>

선소리산타령보존회(2002), 『소암황용주국악대전집』 제1집, 한성음반.
황용주(1992), 『한국 경·서도창악대계』, 선소리산타령보존회.
_____(1988), 『소암 황용주 선소리산타령』, 한성음반.

<단행본>

김해숙 외 2인(1995), 『전통음악개론』, 도서출판 어울림.
박현봉(2008), 『창악대강』, 서울국악예술중고등학교.
세광음악출판사(1996),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장사훈(1975), 『국악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_____(1985),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최태현(2007), 『전통성악교재』, 중앙대학교출판부.
한만영(1991), 『한국전통음악연구』, 도서출판 풍납.

이형환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번지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전자우편 : starhh@naver.com

<Abstract>

A study on singing style of sun sori of Gyeonggi Province
(focused on ApSan Taryeung)

Lee HyungHwan
(Chun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intends to elucidate musical characteristic of representative style of male singing with standing position and Gyeonggi sun sori having been song in the Gyeonggi province and Seoul with priority given to vocalism of the taryeong(traditional Korean ballad) about front mountain.

It is importance of this analysis for the reason that most of sori of Gyeonggi province and Seoul have been less remarked and less academically approached comparing pansori of Honam district.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will achieve main aim as mentioned above so as to analyze vocal characteristics specializing the kind of vocalism and function of musical code centering around in the apsan taryeung among Gyeonggi sun sori.

Key Words: Gyeonggi sun sori, apsan taryeung, vocalism, sok-chung,
dulgimok